

발표요약문

감염병과의 전쟁, 백신을 통해 찾은 희망

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IVI) 책임연구원

* 폰트: 맑은고딕(11pt) / 200~400 단어

Keywords: 코로나 19, 백신, 신종감염병

SARS-CoV-2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대유행이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간 전파까지 계속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언제 끝이 날지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감염증 감염자 숫자는 2억명에 달하며,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치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붕괴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국가들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러스 유행 추세에 맞추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으나,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국민들의 거리두기에 대한 비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주된 전략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져왔다. 통상 백신을 개발하는 데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상황 속에서 1년 미만으로 개발 기간이 단축되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접종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감염병과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 사이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면서 전파력이 높아진 반면, 백신은 대량 생산 및 공평한 보급 측면에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바이러스의 변이에 맞춰 부스터를 추가로 접종받아야 할 수도 있고, 향후 코로나19 백신을 주기적으로 접종받아야 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 필요성과 백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제 신종감염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한 국가의, 나아가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바로 신종감염병이 더 이상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위협이며, 자국이 아니더라도 국경 밖 그 어디에서라도 위협이 존재한다면 누구도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mRNA 또는 바이러스 운반체와 같은 새로운 백신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백신개발이 이어졌다. 이는 미래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여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 생명공학 및 백신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보급 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의 힘을 엿볼 수 있다. 개별 국가 또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어려웠을 백신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를 코백스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감염병 X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